제301호 天主敎 全州 敎區報 1978. 8. 27 (1)

연중 제 21 주 일

기도서 P. 419 A해
제1독서 (이 사 22, 19—23절)
제2독서 (로 마 11, 33—36절)
복 음 (마 태 16, 13—20절)

숲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사명』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태오16,15)—

강 덕 행 신부

수난과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사업의 대상인 민중과 그 사업을 계승할 제자들의 신앙의 기초를 알아 보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고 물으셨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옛 수리아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사상과 풍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큰 인상을 준 분으로 생각하여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아 또는 예언자중의 한 사람이라고 불렀읍니다. 그러나 제자중의 하나인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하고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아 맞추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인식의 상이(相異)함을 엿볼 수 있읍니다.

이들은 그 이름의 성격에 따라 그 사명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그 이름의 성격때문에,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사명이 있으며, 아버지는 그 이름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돌볼 사명이 있읍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란 이름도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 있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며 하느님의 뜻을 준행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잘 깨달은 시몬 바르요나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다음, 천상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당신 사명을 새롭게 온전히 맡기셨읍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각자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에 상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쟁이도 별 수 없구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 반성도 없이 살기 때문에 말로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생활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커녕. 먹칠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살므로 사실상은 외면하고 있읍니다.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여태까지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용감하게 우리 주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을 완수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읍니다. (마태오 10, 32)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증언하시겠으나, 주님을 외면하면 우리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덕진 천주교회 보좌신부〉

젊은 숲정이

진 다미아노

젊은 마음이
시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에
사랑을 수놓고 있는 것이외다.

젊은 마음이
서울에서 부는 바람에
다듬어질수록
정의의 분노가
이글 이글 가슴에 타오를 뿐이외다.

젊은 마음들이여
시대를 이기고
저 창공에 날개를 펼치자
날개를 펼치자.

지금 우리의 사랑은 희망이 없고
지금 우리의 꿈은 가꿀 수 없으니
젊은 마음은
붉게 붉게 더 할 수 밖에……

그리고 젊은이
썩은 별이 나리고 낙엽의 빛깔이 퇴색될 때
세상은 끝나버리고
어둠이 나린다.

긴— 긴 날 평화를 위하여
젊음을 태우자.
숨길 수 없는 진리와 정의를 위하여……

(대구 대교구)

숲정이 산책

우리도 교황을 위하여 기도를…

꿀벌의 독백

전 갑 균(라파엘)

한 낮의 뜨거운 햇살을 벗어진 머리 위로 받으면서 부지런히 동구 밖 메밀꽃 밭으로 꿀을 따러 가는 꿀벌이 중얼 거립니다.

세상에서 칭하기를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 하나는 행정부원에게, 하나는 사법부원에게, 하나는 입법부원에게 드리겠읍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요새는 Give and tahe(주고 받고) 아닙니까? 특권층을 잘 구슬려야 우리 사업이 잘 될터니까, 요새 사람치고 안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기회가 마땅치 아니하기 때문이죠.

웅왕님!

당신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을 수장 시켜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옛날에는 일년 열두달 기다려 보아야 재수 좋으면 한 둘이면 족했는데, 근래에는 수십명씩, 그것도 일시에 몰살시켜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돈만 주면 정비 불량 차량도 눈감아 주니까 그것이 불상사나와서 그러하십니까? 사람 목숨이 파리떼 죽듯이 해서야 되겠읍니까?

맹자님!

당신께서는 인생의 즐거움 중에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을 꼽아 주었읍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란 말도 있읍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서 그러하십니까? 오늘날의 가짜 교사자격증은 웬 청천벼락 떨어지는 소리입니까? 하기야 먹는 식품도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 자격증 교사도 필요하시겠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시켜야 할 교육계가 오염되어서야. 맹자님! 지금 이때를 보시면 할 말씀이 무엇인지요?

Don Juan(돈 화안)이여!

당신의 추행은 또 다시 이 땅위에 되살아나야 하겠읍니까. 옛날의 그 시절에 죽했으면 그만이지,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소위 선량으로 칭하는 국회의원으로 탈바꿈 하였나요? 전술한 가짜 교육의 잘못입니까? 함부로 덧모르고 날뛰는 여고생을 혼내 주려고 그런 양식없는 소행을 하였읍니까? 돈화안의 악몽이여 멀리 사라져 버리소!

우리 꿀벌들에게는 초막 셋이 좋습니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모르는 우리 꿀벌사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덕진 천주교회 전례위원장〉

제3차 순교자 현양대회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平協)가 주관하는 제3차 순교자 현양대회가 9월 24일〈일〉에 있읍니다.

이날, 교구내 모든 교형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순교자의 높은 뜻을 기리며, 우리의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이에 적극 참여하시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1. 글짓기 대회

① 주제 및 원고의 길이

(1) 일반부…현대와 순교의 의미(오늘날의 순교)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 고등부…유요한과 이누갈다가 주는 교훈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3) 중등부…복자 유대철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4) 국민학교부…복자 성월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② 원고마감…(1) 9월 15일까지

(2) 교구청내 평협 사무국으로

③ 시 상…(1) 최우수상—각 부를 통털어 1명

(2) 우수상—각 부별로 1명씩

(2) 입선—각 부별로 3명씩

2. 웅변대회

① 주제…순교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내용

② 시간…7분

③ 원고…9월 15일까지 평협 사무국으로 제출

④ 예선…9월 23일 오후 4시, 가톨릭센타 강당

⑤ 본선…9월 24일 오후 2시

⑥ 시상…글짓기부와 같음

3. 성가 경연대회

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

② 일시…9월 24일 오후 2시

③ 시상…(1) 최우수상—1개 본당

(2) 우수상—2개 본당

(2) 입선—3개 본당

4.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① 시험범위…(1) 주요 기도문

(2) 요한복음 전체

(2) 가톨릭 교리서 1~18과

② 시험일자…9월 10일, 각 본당에서

③ 시 상…9월 24일

5. 순교 성지안내 유인물 제2판(증보판) 제작

대학생회관장 김진소 신부께서 준비중에 있음

6. 성지 순례 기념 페난트 및 엽서 제작

□ 교육용·가정용·교회용·연주용

당신을 위한

써니 (SUNNY) 전자 올갠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대리점 : 전주시 고사동 1가 125

세 광 음 악 학 원

□ 대 표 : 염 규 철(요셉) 2—6111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읍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암 (모이세)

□ 성모승천 □

표창받은 어머니 마리아 (2)

김 영 구 신부

또 멀리 5천년전의 일,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당장 어떤 처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허락할 처녀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일이건, 사람의 일이건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할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명령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 순종했으니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리아의 한일은 성자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는데 예수님은 영육간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맡아 기를만한 자격이 인정된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라고 했읍니다. 예수님이 복중에 계실때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중의 예수님에게 영육간 유익하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임신부는 악한 말 악한일은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걸도 정로를 걸어야 합니다. 보통 임신부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성모 마리아야 오직 했겠읍니까?

마리아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되었읍니다. 첫째 희생은 마리아의 명예가 희생되었읍니다. 남편 요셉도 잉태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저 하는데 천사의 지시로 깨달아 부부가 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세주의 자격이 없읍니다. 마리아는 정신적으로도 희생을 했읍니다. 해산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헤롯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 일대의 두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산모가 어린 예수를 안고 나귀를 타고 밤중에 애급으로 피난을 갔으니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괴로왔겠읍니까? 어린 예수를 기를때부터 정신적 고통을 당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30세 나서 갈릴리 가나안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진 것을 보고 술이 없다하니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읍니까"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었겠읍니까? 또 예수가 미쳤대, 바알세불이 들렸대란 소문이 들릴 때, 어떠했겠읍니까? 공생활에 나선지 3년도 채못되어서 악당에게 잡혀서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높혀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망치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참아 듣기 어려웠겠으나, 마리아의 심장은 터지는듯, 칼로 찌르는듯, 뼈가 녹아나는 듯한 소리였읍니다. 마리아가 아니고야 어찌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의 사명인줄 알고 원망 한마디 없이, 자카리아가 일찍 예언했던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구나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랄때에는 예쁘고 귀하다 쓰다듬어 주었지만, 반대로 어린이가 말을 잘 안듣고 괴롭게 할 때에는 욕하고 때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미워하지나 않습니까? 마리아는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어머니로서의 모범이 되었읍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훌륭한 인재를 기를만한 훌륭한 어머니가 됩시다.

전 주
스타 사진관
전화 ② 6094
급구 견습공 모집
만 16세~20세 미만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읍니다.

◎ 건강 관리 센타 ◎
영 진 약 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 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 양심을 찾자 ★
현 대 칼 라 특 약 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 앙 사 진 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 8월 28일(월)은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의 영명축일
주교님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합시다

1. 성령 세미나…28일〈월〉—9월 1일〈금〉, 가톨릭 센타
2.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
① 범위…주요 기도문, 요한복음 전체, 가톨릭 교리서 1~18과
② 시기…9월 10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함
※ 각 본당 중·고등학생 회장단 회의…오늘 10시 30분, 가톨릭 센타
3. 혼인문제 상담일…9월 4일〈월〉, 교구청 응접실
4. 군·옥지구 학생 연합회 순회미사…9월 2일〈일〉 오후 5시, 둔율동 성당

□ 숲정이 대금이 밀린 본당이 많습니다. 도와 주세요.

(중앙)

전화 ③3651 / 3874

주임 신부 서 용 록
보좌 신부 정 승 현
보좌 신부 범 영 배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성심부녀회 성지순례 : 1일(금) 오전 9시(성당)
2. 주일학교 시작 : 2일(토) 오후 3시
3. 상지회 루갈다 묘지참배 : 3일 공식미사 후
4. 김대건 신부 탄생지 순례
장소 : 충남. 솔뫼
일시 : 9, 11일(월) 오전 8시
회비 : 2,500원(사무실에 신청할 것)
5. 공식미사 전례
금주(27日) 복사 : 오중원, 김한영 해설 : 장남수
다음주(3日) 복사 : 이강호, 김정생 해설 : 양학도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록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형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 9월 1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애령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아동학교 개학 : 9월 3일 교리—오후 2시, 미사—3시
2. 학생회 월례회 : 9월 2일(토) 6시 많은 참석 바람
3. 가족사진은 준비가 되셨는지?
정확한 주소 알려 주세요
4. 가정방문 반장님들의 협조가 있기를…
5. 한가정에 숲정이 한장씩만
6. 미납된 신축헌금은 언제 납부 하시렵니까?
7. 미사시간 늦지 않도록 성사는 미사 시작 30분전에
8. J, O, C 회원·근로 청년모임 : 9월 3일 공식미사후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첫첨례 7 : 9월 2일 오후 8시
3. 봉헌금 매주 미수가 없도록 정성을…
4. 박병준 부제님 28일 개학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며 훌륭한 사제되시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5. 전화 및 주소변경시 2—5238 본당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6. 부녀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7. 반회장 회의 : 28일(월) 오후 8시 시간엄수 바람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애령주일 : 10일 미사후 기도부터 위령기도
2. 축! 영명 : 김아오스딩 주교님
3. 주일학교 개강 : 9월 2일
4. 신축헌금(제12반)
고광필, 주길남, 최병일(각 10,000원)
박한수(5,000원) 오치순(20,000원) 이안나(3,500원)
박병환(50,000원)이현자(6,000원) 오상팔(80,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요안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유아세례식 : 오늘 공식미사
3. 누깔다 부녀회 월례회 : 9월 2일(토)
4. 예비자 교리 시작합니다
5. 사도회 월례회 : 9월 3일 공식미사 후
(구역장, 반장 참석 바람)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종

☆ 복자 성월 중점 계획 목표
1. 선교 : 영세 입교 활동
2. 전례 : 성서 성물 지참
3. 단체 : 신심활동 강화
4. 교무금 : 봉헌 정신 고취
5. 순례 : 순교정신 현양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 정 현
사도회장 채 수 현

1. 수녀원 증축 변소설치 신입기금
전신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안내 : 매주—공식미사후, 금—오후 5시

* 인쇄·전 주 보 광 출 판 사 ☎ ③ 3 2 7 2